



##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결핵 선진국으로 가는 길

보건세계 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올해는 협회가 1953년 창립되어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. 지난 60년 간 한 회도 거르지 않고 보건세계를 발행해 온 자부심을 갖고 더 나은 보건세계로 여러분을 만나고자 준비해왔으며, 드디어 2013년 여름호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와 같이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는 보건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.

협회가 창립되던 1953년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라의 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져 보건환경 또한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. 협회는 정부와 함께 폐허와도 같은 상황 속에서 결핵퇴치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고, 그 결과 세계적으로 성공한 결핵관리사업을 펼친 나라로 인식되어 WHO 협력기관으로서 해외 결핵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물론 아직도 국내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. OECD 가입국 중 발병률, 사망률 1위라는 수치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. 하지만 결핵 문제는 조금해한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. 경제 선진국으로, 문화

강국으로 국격을 높여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결핵문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퇴치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, 그리고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.

먼저, 결핵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. 국민들의 면역력이 저하될수록,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, 노숙인이 증가할수록 결핵발병 요인은 높아집니다. 특히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환자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.

경제 선진국으로, 문화 강국으로 국격을 높여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결핵문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퇴치사업을 수행하는 협회, 그리고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.



대한결핵협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20만여 명의 취약계층 검진을 실시했습니다. 그 결과 노숙인의 결핵유소검사 발견율이 매우 높았으며, 실제로 노숙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폐결핵 유병률 및 감염률이 23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.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결핵완치 및 추구관리가 어려운 노숙인에 대한 특별 결핵관리 대책이 시급합니다.

지금까지의 결핵 정책이 결핵 치료에 급급했다면, 앞으로는 결핵예방과 조기발견, 결핵환자의 효과적인 관리 등 질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. 예방화학 치료의 기준을 확대하고, 결핵치료자의 직접복약 확인 등의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.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환자의 인권입니다. 결핵은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다른 질병처럼 “내가 결핵을 앓고 있다”고 속 시원히 털어놓기 어렵습니다. 간혹은 결핵환자라는 이유로 취업 현장에서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.

결핵환자의 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5%, 한 달에 1만원 전후의 비용이면 결핵을 치료할 수 있어 결핵 치료에 있어 경제적 부담은 상당부분 덜어진 셈입니다. 이제는 환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, 치료 후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건강

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자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. 그러한 정책이 현실이 되는 날 진정한 결핵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또 한 가지, 창립 60주년을 계기로 북한의 결핵문제에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합니다. 1953년 같은 상황 하에서 분단된 남한과 북한의 결핵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.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세계 결핵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. 이래서는 일관된 지원정책을 펼치고, 나아가 북한의 결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.

언젠가 통일이 되면 가장 우려되는 보건문제가 바로 결핵입니다. 북한의 결핵문제는 그 정확한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,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 북한 결핵퇴치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.

창립 6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국내 결핵문제는 물론 저개발국의 기술지원과 북한 결핵퇴치 지원까지,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 “결핵 없는 건강한 세상”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†